

다대포침사 윤흥신의 임란(壬亂) 사절(死節) 경위와 조선후기의 현창

이 민 응*

| 목 차 |

- I. 머리말
- II. 윤흥신의 가계와 생애
- III. 사절(死節) 경위와 임진왜란 최초의 승전(勝戰)
- IV. 조선후기의 현창(顯彰) 과정
- V. 맺음말

| 국문초록 |

임진왜란 초기의 다대포침사, 윤흥신은 조선전기 대표적인 훈척 가문인 파평 윤씨로 인종의 외숙인 윤임(尹任)의 다섯째 아들이다. 을사사화의 여파로 공신의 노비가 되었다가 32년 후에 신분을 회복하였다. 이후 그는 몇몇 관직을 역임하고 임진왜란 직전에 다대포침사가 되었다. 그는 임진왜란 첫날, 다대포성을 공격해온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것은 임진왜란 전투 첫날 거둔 승전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적지 않다. 그는 이튿날 임지를 지키다가 전사하였다. 그의 사절(死節)은 몇 가지 이유로 후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18세기 중엽 동래부사와 경상감사를 지낸 조

* 해군사관학교 인문학과 교수 / mwlec00@hanmail.net

엄은 이 사실을 알고 조정에 포상을 건의하였다. 조엄 당대에 윤흥신의 충렬사 추가 배향이 이루어졌다. 그의 손자 조인영 대에는 윤흥신 순절비가 세워졌다. 이러한 조엄 가문의 3대에 걸친 윤흥신 현창사업은 주목받을 만하다. 한편 조정 차원에 서도 선무원종공신 1등 책봉, 정려와 병조참판 증직, 충렬사 추가 배향 등 현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제어 : 다대포침사 윤흥신, 조엄(趙職), 충렬사 배향, 순절비

I. 머리말

임진왜란 개전 초기, 부산진성과 동래성에서 침사 정발(鄭撥)과 부사 송상현(宋象賢)이 전사한 것은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전투이자 저항이었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이들에 대해서는 증직과 시호(諡號)가 내려지고, 충렬사에 배향하는 등의 현창 사업이 이어졌다.

같은 시기에 다대포침사 윤흥신(尹興信)도 임지를 지키다가 전사(戰死)하였다. 그런데 앞의 사람들과 전사한 것은 동일하고 첫날 적의 공격을 방어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그의 행적은 18세기 중반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 다대포진이 낙동강 하구의 외진 곳이고, 전쟁으로 인해 주민이 모두 이주했기 때문에 관련 사실이 묻혔던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윤흥신이 조선후기 정권을 장악한 사림파가 비판적으로 보았던 훈척 출신이었던 것도 또 한 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서야 임진왜란 시기 부산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 사람이 나란히 꼽히고, 삼공단(三公壇; 송공단, 정공단, 윤공단)이 각각 설치되는 등 현창사업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발이나 송상현에 대한 학계의 연구에 비해 윤흥신에 대한 연구성과는 거의 없었고,¹⁾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 우선 그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한 것을 들 수 있고, 지금까지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 학계의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점도 꼽을 수 있다.

본고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대포침사 윤흥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윤흥신의 생애와 가계(家系)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출신 배경을 정리해보고, 이어서 그가 임진왜란 초기 다대포침사로서 전사한 경위와 그에 대한 역사서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그에 대한 조엄(趙巖) 가문과 조정 차원의 현창 사업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임진왜란 초기 부산 지역의 다대포성 전투와 윤흥신의 전사 경위 등이 좀 더 자세히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윤흥신의 가계와 생애

임진왜란 개전 초에 다대포침사로 재직한 윤흥신(尹興信)은 본관이 파평(坡平)으로 조선전기에만 4명의 왕비를 배출한 대표적인 훈척 가문 출신이다.²⁾

알려진 바와 같이 그의 아버지 윤임(尹任)이 1545년(명종 즉위년)에

-
- 1) 기존 연구성과는 김석희, 『임진왜란과 부산항전』 『항도부산』 9, 1992.이 대표적이고, 최근에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위상과 활동』, 『군사』 109, 2018.이 있다. 두 편 모두 부산진성과 동래성 등 부산지역 초기 전투, 혹은 경상좌수군을 다루면서 윤흥신과 다대포성전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수준이다.
 - 2) 세조비 貞熹王后, 성종비 貞顯王后, 중종의 계비인 章敬王后와 文定王后 등이 파평 윤씨이다.

일어난 을사사화(乙巳土禍)에서 참화를 당했기 때문에, 윤흥신은 어린 시절부터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의 가계를 통해 출신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평 윤씨 출신의 첫 번째 왕비는 윤번(尹璠)의 딸로 세조비(世祖妃)가 된 정희왕후(貞熹王后)이다. 처음에 음보로 벼슬에 나섰던 윤번은 수양대군(首陽大君)의 장인이 된 이후에 공조판서와 판중추원사 등을 역임하였지만, 사위인 세조가 즉위하기 전에 사망했다.³⁾

윤번의 직계 후손을 살펴보기 전에 성종의 세 번째 부인이 된 정현왕후(貞顯王后)도 같은 과평 윤씨 출신이었다.

윤번의 사촌 형인 윤곤(尹坤)은 고려 말기 문과 출신으로서 상장군(上將軍) 등 무관직을 역임하며 태종의 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웠고, 세종 초에는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윤곤의 손자인 윤호(尹壕)는 문과 출신으로 병조참의를 역임하였고, 1479년(성종 10년)에 숙의(淑儀)로 있던 그의 딸이 성종의 두 번째 계비인 정현왕후가 되자 곧 영돈녕부사가 되었다. 윤호는 우의정을 역임하였으나, 외척으로서 검소하다는 평과 시비에 어두웠다는 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치적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던 인물이다.⁴⁾

다시 윤번의 후손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사분(士昐), 사윤(士昫), 사흔(士昕) 등 세 아들이 있었다. 그 중 사윤은 계유정난(癸酉靖難) 이후 좌익공신 3등에 오르고, 예문관 제학과 공조판서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⁵⁾ 졸기(卒記)에 의하면 사윤은 재물을 크게 모아 박종우, 윤사로, 정인지와 더불어 당대의 ‘사부(四富)’로 일컬어졌다고 한다.⁶⁾

사윤의 아들 윤보(尹甫)는 역시 음보로 출사하여 두 차례 명나라에

3) 『세종실록』 권121, 30년 9월 무자.

4) 『연산군일기』 권12, 2년 4월 병술.

5) 『세조실록』 권2, 1년 11월 신사. 『세조실록』 권17, 5년 7월 임오.

6) 『세조실록』, 권26, 7년 12월 계유. 『세조실록』 권33, 10년 7월 기미.

사행(使行)을 다녀왔고, 공조참판을 역임하였다.⁷⁾ 그리고 윤보의 아들 윤여필은 1504년(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에 윤필상(尹弼商)의 죽친이라 하여 유배되었다가, 2년 뒤인 1506년에는 중종반정에 참여한 공으로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⁸⁾

그 이듬해(1507)에 숙원(淑媛)이었던 그의 딸이 중종의 첫 번째 계비인 장경왕후(章敬王后)가 되자, 윤여필은 파원부원군(坡原府院君)으로 봉군되고 영돈녕부사가 되었다.⁹⁾ 이런 과정에는 중종반정의 1등 공신 박원종의 역할이 컸는데, 그는 윤여필의 처남이었다.

윤여필은 이후 정치적 핵심과는 거리를 두고, 국구로서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 그는 명종 즉위 후 아들 윤임이 을사사화로 참화를 당할 때 이미 80세가 넘어서 연좌되지 않고 90세까지 천수를 누렸다.

장경왕후의 아들이 인종(仁宗, 재위 1545. 1~8월)이고, 왕후의 오빠가 윤홍신의 아버지인 윤임이다. 윤임은 특이하게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충청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하였다.¹⁰⁾ 그러나 윤임은 선대와 달리 승지를 지내고 병조판서를 역임하는 등 조정의 요직을 거쳤다.¹¹⁾

또 한 명의 왕후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의 계통은 다음과 같다. 윤번의 셋째 아들인 사흔은 문음으로 출사하여 동부승지, 공조판서 등 관직을 역임하고 말년에 잠시 우의정까지 되었다.¹²⁾ 사흔의 아들 계겸(繼謙)도 문음으로 출사하여 승지, 대사헌, 경상도 관찰사, 형조와 공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젊은 나이인 42세에 졸하였고, 역시 훈척의 기반을 통해 출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7) 『성종실록』 권157, 14년 8월 무자. 『성종실록』 권174, 16년 1월 기해.

8) 『중종실록』 권1, 1년 9월 갑신

9) 『중종실록』 권3, 2년 8월 무인

10) 『중종실록』 권45, 17년 6월 임진.

11) 『중종실록』 권75, 28년 8월 경진.

12) 『성종실록』 권179, 16년 5월 임술.

계검의 손자가 문정왕후의 아버지인 지임(之任)이다. 윤지임 역시 문음으로 출사하였고, 딸이 중종의 두 번째 계비가 됨에 따라 영돈녕부사가 되었다.¹³⁾ 그는 외척 중에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인 문제에 나서지 않고 조용한 삶을 살았다.¹⁴⁾

그의 다섯째 아들 윤원형은 1533년(중종 28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선 후, 중종 말년에 이르러 세자(인종)를 보호하는 윤임 세력(大尹)에 맞서 명종이 되는 경원대군(慶原大君)을 보위하는 소윤(小尹) 세력으로서 정치적인 갈등 관계를 형성하였다.¹⁵⁾

이상에서 살펴본 파평 윤문에 속한 인물들의 사환(仕宦)에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 중 다수는 문음으로 출사하였고, 주로 정치적 실권이 크지 않은 공조판서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이들은 훈척으로서 사부(四富) 중 2명을 배출할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 기반을 가졌고, 음서로 출사하되 정치적 실권이나 핵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 이러한 사환의 공통점과 특징은 사라진다. 대윤과 소윤을 대표하는 윤임(尹任)과 윤원형(尹元衡)은 9촌 간이었으나 중종의 후사를 두고 경쟁하다가, 을사사화의 주역이 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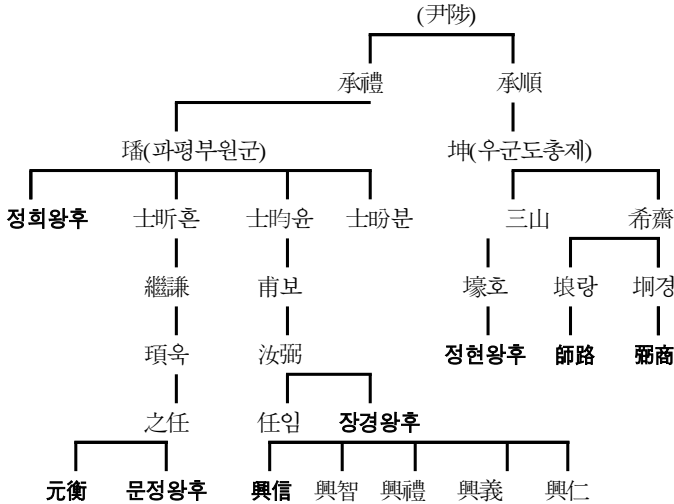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파평 윤씨의 가계를 종합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13) 『중종실록』 권28, 12년 6월 기미.

14) 『중종실록』 권77, 29년 4월 경술.

15) 『중종실록』 권104, 39년 9월 을축.

<그림 1> 파평 윤씨 가계도



정치적으로 반목했던 윤임과 윤원형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임은 무과 출신으로 경원부사(慶源府使)와 충청수사(忠淸水使)를 역임하고, 승지와 병조참판을 거쳐 1533년(중종 28년) 8월에 병조판서에 올랐다.¹⁶⁾ 윤임은 병조판서에 제수되자 ‘자신은 병사(兵事)를 잘 몰라서 직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사양하며 체직(遞職)을 청하였다. 이때 중종은 그의 체직을 윤허하지 않았다.¹⁷⁾

이후 윤임은 1535년(중종 30년) 11월에 두 번째로 병조판서에 제수되었다. 이때에도 그는 같은 이유로 사직 상소를 올렸다.¹⁸⁾ 그 후에도 중종 31년 10월에 세 번째 병조판서가 되고, 이후 1542년(동왕 37년)에는 판돈영부사가 되었다.

16) 『중종실록』 권75, 28년 8월 경진.

17) 『중종실록』 권75, 28년 8월 계사.

18) 『중종실록』 권80, 30년 11월 무인. 『중종실록』 권81, 31년 5월 경진.

윤임은 정승이 되지는 못했지만, 훈신인 김안로(金安老)를 실각시키는 과정에서 중종의 의도를 중신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¹⁹⁾ 한편 그는 병조판서를 역임하던 중 수차례 사임을 청하는 등 외척으로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비해 윤원형은 문과에 급제한 후 중종 말년에 승지와 공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세자의 외숙 윤임 일파에 맞서 경원대군을 보위하는 소윤의 중심인물이 되었다.²⁰⁾

1545년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明宗)이 즉위하자, 윤원형은 윤임 등 대운 세력을 역모로 몰아내는 을사사화를 일으켰다.²¹⁾ 이후 윤원형은 1551년(명종 6년)에 우의정, 1556년(동왕 11년)에 겸 이조판서 등을 거쳐 1563년(동왕 18년)에는 영의정에 올랐다.²²⁾ 이 기간 중에 이조판서를 겸하는 기간이 길었고, 문정왕후의 지원을 받아 전권(專權)을 행사하였다.

윤원형에 대한 평가는 그의 졸기를 통해 요약해 볼 수 있다. 특히 사론은 ‘권간(權奸)으로 그 죄악이 하늘에 닿기로는 윤원형 같은 자가 드물 것이다’로 시작해서 명종 연간에 국정을 농단하여 매관매직 등을 통한 뇌물이 국고보다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친형인 원로와 조강지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강상(綱常)을 범한 파렴치한으로 혹평하고 있다.²³⁾

요컨대 윤임과 윤원형은 권력의 핵심으로 요직을 거쳤다. 특히 윤원형은 영의정까지 지내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훈척이었다.

이상과 같은 가계(家系)와 사건 때문에 윤홍신은 순탄치 못한 일생을

19) 『중종실록』 권98, 37년 4월 갑인.

20) 『중종실록』 권104, 39년 9월 을축.

21) 『명종실록』 권2, 즉위년 9월 신미.

22) 『명종실록』 권29, 18년 1월 병신.

23) 『명종실록』 권31, 20년 11월 신해.

살았다. 윤홍신은 1540년(중종 35년)에 권력자인 윤임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²⁴⁾ 그러나 을사사화가 발생하자 부친 윤임과 세 명의 형들은 참형을 당했고, 자신과 남은 형제들은 공신의 노비가 되었다.²⁵⁾

그로부터 32년 뒤인 1577년(선조 10년)에 이르러, 윤임 등 을사사화의 피해자들이 사면 복권되었다.²⁶⁾ 이때 윤홍신도 노비에서 벗어나 원래의 신분을 되찾으면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그 후 윤홍신은 부친의 관직이 회복됨에 따라 음보(蔭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게 된다. 그의 관직 진출과 관련하여 무과에 급제했다는 기록이 있으나,²⁷⁾ 현존하는 『무과방목』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²⁸⁾ 또한 1580년(선조 13년) 10월에 진천현감(鎭川縣監)을 지내다가 문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직된 것을 통해 볼 때, 무과에 급제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그의 사환(仕宦)에 대한 기록은 소략하지만, 전술한 대로 복권된 이후 40세 때에 진천현감을 역임한 것은 확실하다. 그 후 1582년(선조 15년) 8월의 『실록』에 또 다른 비위 때문에 다수의 인물과 함께 사헌부의 탄핵을 받은 바 있다.³⁰⁾ 그 후 그는 1584년(선조 17년)에 진도군수(珍島郡守)가 되었다. 『진도군읍지』에 의하면, 그가 1년 2개월간 군수로 재직

24) 윤영준, 『다대포첨사 윤홍신공 사적』, 부산: 제일인쇄재료사출판부, 1981. 11쪽의 ‘관도공과’ 족보 사진 참조.

25) 같은 자료에 의하면 윤임의 첫 번째 부인 여흥 이씨의 소생인 세 형은 처형당했고, 두 번째 부인인 현풍 곽씨의 소생들은 나이가 어려서 참형을 면하였다. 윤홍신은 을사사화 당시 여섯 살이었다.

26) 『선조수정실록』 권11, 10년 11월 1일 계축.

27) 『知退堂集』 권5, 雜記, 『壽春雜記』 ‘尹任’

28)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people.aks.ac.kr)’ 무과방목 확인(검색일: 2020.07.15.).

29) 『선조실록』 권14, 13년 10월 정사.

30) 『선조실록』 권16, 15년 8월 무자.

한 것을 알 수 있다.³¹⁾ 그 이후 그는 53세 때에 다대포침사(多大浦僉使)가 되어 임진왜란을 맞게 되었다.³²⁾

Ⅲ. 사절(死節) 경위와 임진왜란 최초의 승전(勝戰)

1. 다대포진 전투에 대한 자료 검토

1592년 4월 13일 오후 4시경, 부산포에 도착한 일본군이 14일 이른 아침에 부산포침사진을 공격하면서 임진왜란 7년 전쟁이 시작되었다.³³⁾ 먼저 임진왜란 개전 초기 2~3일간의 전투 양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 부산 지역의 전투에 대해서는 허선도(許善道)와 김석희(金錫禧)의 선도적인 논문이 있다.³⁴⁾ 전자의 논문은 서론과 역대 동래 수신(守臣)의 임란 사절 송양사업을 정리한 상(上)편만 있고, 사절 사실 등을 다룬 하(下)편은 아쉽게도 없다. 후자의 논문은 부산진성과 동래성, 다대포성 전투 경위에 대해 역사적 사실은 자세히 정리하였으나, 다대포성 전투에 대한 의미부여, 즉 역사적 의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31) 『珍島郡邑誌』(규장각,奎17427), ‘先生案’, ‘尹興信 甲申二月初四日到任 乙酉四月初七日啓罷’.

32) 『선조실록』이 전쟁 때문에 자세하지 않아 언제 그가 다대포침사가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임란 개전기 그의 초기 대처 상황으로 볼 때, 대략 임진왜란 1년 전쯤 부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3)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일본의 날짜는 서로 다른 책력(冊曆)을 쓴 관계로 하루 차이가 난다. 즉 일본 날짜에 하루를 더하면 조선의 날짜가 된다.

34) 허선도, 「임란 벽두 동래(부산)에서의 여러 순절(殉節)과 그 송양사업에 대하여(上)」, 『한국학논총』 10, 1987, 89~126쪽. 김석희, 「임진왜란과 부산항전」, 『향도부산』 9, 1992, 47~76쪽.

그 외에 입진왜란 관련 저서 중 몇 편에서 다대포성 전투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경우가 있다. 먼저 이형석(李炯錫)은 입진왜란 전반에 걸친 자료집 성격의 저서에서 부산 지역의 서전(緒戰)에 대해 ‘일본군을 앞에 놓고 죽음으로써 임지를 최후까지 지킨 수령. 방백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언급하며 ‘부산진 침사 정발, 다대포진 침사 윤희신, 동래부사 송상현, 양산군수 조영규’를 언급하였다.³⁵⁾ 더 나아가 다대포진 전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절 없이 부산진 전투를 언급하는 가운데 윤희신 침사가 끝까지 임지를 지키다가 전사했다고 언급하였다.³⁶⁾

다음으로 서인한(徐仁漢)은 개전(開戰) 관련 서술의 끝부분에 ‘부산진성을 점령한 고니시 군은 그 기세를 타고 인접 지역인 서평포와 다대포성을 공격하였다. 서평포에 이어 다대포진도 일본군의 포위 공격을 받아 침사 윤희신이 전사함으로써 함락되었다.’³⁷⁾라고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이이화(李離和)의 저서에서도 다대포진 전투 관련 기사는 개전 초기 상황을 언급하는 가운데, ‘일본군 일부는 곧바로 동래성 아래쪽에 있는 서평포와 다대포를 습격해 완강한 저항을 꺾고 점령했다.’³⁸⁾라고 간략히 언급하였다.

서인한과 이이화의 저술에서는 서평포와 다대포의 저항 주체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다대포진의 전투 상황도 내용이 생략된 채 단지 부산진성 전투 이후 이들 지역이 일본군에 의해 차례로 점령되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일본측 연구성과에 나타난 다대포진 전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세기 초에 도쿠토미 이이치로(徳富猪一郎)는 그의

35) 이형석, 『壬辰戰亂史』上, 임진전란사 간행위원회, 1967, 201쪽.

36) 이형석, 위의 책, 236쪽.

37) 서인한, 『입진왜란사(민족전란사 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35쪽.

38) 이이화, 『조선과 일본의 7년전쟁』, 한길사, 2000, 127쪽.

저서에서 부산과 동래의 함락을 다루면서 다대포진 전투에 대해 ‘일본군이 서평포와 다대포를 함락하였고, 다대포진의 첨사 윤홍신은 전사하였다.’³⁹⁾라고 간략히 언급하였다.

바로 뒷 시기 연구자인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는 다대포진 전투에 대해 이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수사는 박홍(朴泓)이었는데, 『징비록(懲毖錄)』에 의하면 부산진이 함락되자, 박홍은 병력을 내보내지도 않고 도주하였다.(각주 1. 이하는 각주 내용; 『징비록』 권1. 본서에 이 기사를 이어 ‘일본군이 군사를 나누어 서평포, 다대포를 함락하였다. 다대포첨사 윤홍신이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고 나온다. 두 포는 모두 부산포의 남쪽에 있다. 우리-일본-군의 2포 점령은 부산진과 같은 날이 아니다.)⁴⁰⁾

이케우치는 『징비록』의 내용을 들어 부산진 전투에 대해 설명한 뒤에, 서평포와 다대포 점령 관련 기사를 소개하였다. 그 뒤에 별도로 두 포가 부산포의 남쪽에 있다는 사실과 다대포진의 점령이 부산진 전투와 다른 날 이루어졌다고 서술하였다.

각주(脚註)를 통한 간략한 언급이지만, 그는 다대포진 전투가 이틀에 걸쳐 펼쳐졌기 때문에 부산진 전투와 다른 날에 점령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징비록』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 측의 관련 자료, 또는 다른 일본측 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20세기 후반, 일본의 대표적인 임진왜란 연구자였던 기타지

39) 徳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 丁篇(朝鮮役 上卷)』, 東京 民友社, 1921, 343쪽.

40) 池内宏, 『文祿慶長の役』 別編 第一, 東京 (財)東洋文庫, 1936, 14~15쪽.

마 만지[北島万次]는 그의 저서에서 일본과 조선의 전거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이 부산성을 공략할 때에,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그의 병력을 나누어 부산포의 서남쪽에 위치한 서평포와 다대포를 향했다. 다대포침사 윤희신과 휘하 병력의 방어 전투도 헛되어 서평포·다대포는 일본군의 손에 함락되었다.(『朝鮮雜記』, 『징비록』)⁴¹⁾

기타지마 씨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 저서들과 비슷하게 부산진 전투와 동래성 전투의 중간에 일본군에 의해 서평포와 다대포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2. 다대포진 전투의 경과와 사절 경위

그렇다면 실제 다대포진 전투는 어떠한지 조선과 일본 양측의 자료를 통해 당시 전투 상황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먼저 다대포진 전투에 대한 근거 자료로는 우선 19세기 초에 발간된 『충렬사지(忠烈祠志)』 권 3에 포함된 조엄(趙巖)의 「다대포침사 윤공 전망사적서(多大浦僉使尹公戰亡事蹟敘)」와 강필리(姜必履)의 「윤공사절기(尹公死節記)」를 들 수 있다.⁴²⁾ 이들 기록에는 『懲毖錄』과 『再造藩邦志』, 그리고 팔곡(八谷) 구사맹(具思孟)의 『팔곡집』 「잡고(雜稿)-난후조망록(亂後吊亡錄)-」 등 다대포진 전투 관련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들과 함께 『壬辰狀草』 등의 자료와 『서정일기(西征日記)』,

41) 北島万次, 『朝鮮日記・高麗日記(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 (株)そしえて(東京), 1982, 13쪽.

42) (재)충렬사 안락서원, 정중환(丁仲煥)·김석희(金錫禧) 번역, 『충렬사지』, 대광인쇄공사, 1978, 69~73쪽.

『길야일기(吉野日記)』 등 일본측 자료를 토대로 당시 부산 지역의 초기 전투와 다대포진 전투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침략군 제1진이 부산포에 도착한 것은 1592년(임진년) 4월 13일 오후 5시경이었다.⁴³⁾ 당시 부산포 침사는 정발(鄭撥)이었다.⁴⁴⁾ 이날 정발은 도해한 일본군의 규모가 매우 커서 중과부적(衆寡不敵)임을 파악하고 해전(海戰)을 포기하고 진성(鎭城)에 들어가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일본군은 대마도주 소오 요시토시(宗義智)가 잠깐 상륙하여 조선군의 방비 상태를 둘러보았고, 이날은 전투 없이 정박한 배에서 밤을 보냈다.

임진왜란 첫 번째 전투인 부산진성 전투가 시작된 것은 4월 14일 해 뜰 녀인 오전 6시경이었다. 전투가 끝난 시간은 사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시 전후로 추정된다.⁴⁵⁾ 10배가 넘는 대병력의 공격 앞에 1천여 병력이 옥쇄(玉碎)하였고, 일본군은 조선군 병력 외에 민간인과 가축까지 살육(殺戮)했다고 한다.⁴⁶⁾

부산진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14일 오후, 본대를 동래성 부근으로 진진 배치하였다. 이와 동시에 부산진의 남서쪽에 있는 서평포(西平浦)와 다대포(多大浦)를 점령하기 위해 별도의 부대를 파견하였다.⁴⁷⁾ 서평포와 다대포는 부산 서남쪽에 위치한 수군 진영인데 특히, 다대포는 수군 침사진(水軍僉使鎭)으로 낙동강 하구와 부산 외해로 이어지는 곳에 위

43) 텐케이[天荊], 『西征日記』(김시덕, 『『서정일기』(상)』, 『문헌과 해석』 58, 2012년 봄, 88쪽). 李舜臣, 『壬辰狀草』, 『萬曆二十年四月十五日戌時啓本』 역시 ‘오후 4시경 일본 군선 90여 척이 부산포를 향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다.

44) 김석희, 앞의 논문, 1992, 49~53쪽 참조(이하 같음).

45) 『서정일기』에는 6시 포위 8시 함락, 『길야일기』에는 6시 포위 9~13시 함락으로 되어 있고, 우리 측의 『장비록』 등은 정오경에 함락된 것으로 나와 있다.

46) 吉野甚五左衛門, 『吉野日記』(김시덕, 『요시노진고자에몬 비망록』, 『문헌과 해석』 63, 2013년 여름, 96쪽).

47) 앞의 일본측 자료에는 서평포, 다대포 관련 기록이 없다. 이순신, 『임진장초』, 『萬曆二十年四月十六日亥時啓本』.

치해 일본군이 반드시 점령해야 할 요충지였다.

이 때문에 일본군은 부산진성을 공략한 후에 별도의 부대를 보내 서평포와 다대포를 점령하려 했던 것이다. 서평포는 전투 없이 무혈점령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다대포진 전투에 대해서는 팔곡(八谷) 구사맹(具思孟)⁴⁸⁾의 기록이 자세한데, 그 전문(全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대포침사 윤홍신

왜적이 성을 포위하자 힘써 싸워 적을 퇴각시켰다. 그 부하가 이르기를 ‘명일에 적이 큰 세력으로 와서 공격한다면 상황이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을 나가 피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자 홍신이 이르기를 ‘죽음이 있을 뿐이다. 어찌 차마 간다는 것인가?’ 하였다. 적이 과연 크게 이르렀는데, 군졸이 모두 도망하였고 홀로 종일토록 적을 쏘다가 성이 함락되면서 죽었다.

분주히 도망하여 열읍은 이미 모두 비었는데

자리 지켜 죽겠다는 고고한 언행 홀로 충성을 바쳤구나.

휘하들이 만약 그를 따라 끝내 흩어지지 않았다면

외로운 성은 오히려 뛰어난 공을 세우기에 족했으리라.⁴⁹⁾

위 인용문을 통해 일본군의 제1차 다대포진성 공격은 4월 14일에 있었고, 침사 윤홍신과 휘하 병력이 이를 격퇴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다

48) 구사맹(1531~1604)은 본관이 능성(綾城), 자는 경시(景時), 호가 팔곡(八谷)으로 한성 부판윤, 좌부승지,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인조(仁祖)의 외조부로 사후에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왕실의 인척이면서도 청렴결백하고 근신했다고 전해진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검색일: 2020.05.10.)).

49) 具思孟, 『八谷集』 『雜稿』, ‘亂後吊亡錄’ 死節(『韓國文集叢刊』 40, 540쪽) 多大浦僉使 尹興信 倭賊圍城 力戰却之 其下曰 明若舉陣來攻 勢必難支 莫如出避 興信曰 有死而已 何忍去也 賊果大至 軍卒盡逃 獨終日射賊 城陷而死 (詩) 奔亡列郡已全空 分死危言獨效忠 麾下若教終未散 孤城猶足策奇功.’

대포진의 병력을 수백에서 천 명까지로 가정해 본다면, 공격해 온 일본군 부대 역시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였을 것이다. 이때 일본군 부대는 서평포를 점령하고 이어서 다대포 진성을 공격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첨사 윤홍신과 다대포 장병의 저항에 막혀 첫날 다대포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났던 것이다.

일본군이 다대포성을 공격한 첫날이 4월 14일 개전 당일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앞 주에 언급한 『임진장초』가 있다. 개전과 관련된 장계 중에는 ‘(14일) 일출 무렵에 부산진이 포위되어 접전이 시작되었고 포 소리가 천지에 진동했다.’라는 것과 ‘(같은 날) 서평·다대포는 이미 길이 막혀 원병(援兵)이 때에 맞춰 갈 수 없어 지극히 염려된다.’⁵⁰⁾라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발생한 일본군 사상자에 대한 기록은 불명확하다. 하지만 다대포진 첫날 전투에서 적어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록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임진왜란 개전 첫날에 조선군이 거둔 의미 있는 승리였다.⁵¹⁾

전술한 대로 다대포진은 부산진 배후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일본군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곳이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파악한 부하들은 첨사 윤홍신에게 고립무원인 다대포성을 포기하고 뒷날을 도모하고자 건의하였다. 하지만 첨사 윤홍신은 임지 사수(死守)를 택했다. 아쉬운 점은 휘하 군졸의 도망을 막지 못한 것이었다. 예상대로 이튿날 일본군이 병력을 증강해서 다시 공격해 왔고, 결국 4월 15일에 다대포성이 함락되면서 윤홍신은 전사하였다.

50) 『李忠武公全書』 권2, 『狀啓』 ‘因倭警待變狀(3)’

51) 앞의 『임진전란사』나 『임진왜란사』, 『조선과 일본의 7년 전쟁』 등 기존 개설서에서는 4월 28일 정기룡(鄭起龍)의 추풍령전투, 신각(申恪) 등이 거둔 5월 2일의 해유령(蟹諭嶺) 전투 승리 등을 언급하면서도, 조선군이 거둔 최초 승리였다는 역사적 의미 부여는 하지 못하였다. 개전 초기 육전에서 토붕와해(土崩瓦解)로 패퇴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외의 다대포진 전투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대포진 함락과 첩사 윤흥신의 전사 사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유성룡(柳成龍)은 부산포진 전투 경과와 좌수사 박홍의 도주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왜군은 군사를 나누어 서평포와 다대포를 함락 시키니, 다대포첩사 윤흥신은 힘껏 싸우다가 적에게 죽었다.’라고 간략히 기술하였다.⁵²⁾ 신경(申晷)의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도 『징비록』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⁵³⁾

반면에 일본측 자료인 『西征日記』나 『吉野日記』에는 다대포진 전투와 관련된 기사가 없다. 첫 번째 전투인 부산포진 전투와 동래성 전투 관련 기록과 동래성이 함락된 날 좌수영((慶尙)左水營)과 기장(機張)을 함께 함락했다는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다대포진 전투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전쟁 전체에 미친 중요도와 관련해서 하루가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큰 흐름상 특기할만한 전투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들이 패한 전투는 기록하지 않은 일본의 역사 서술 경향도 또 한 가지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사 윤흥신이 개전 첫날 펼쳐진 다대포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다대포진 함락 날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다대포진이 함락된 것은 4월 15일로 추정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의 『충렬사지』 기록을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동래부사를 역임한 강필리(姜必履)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52) 류성룡, 『징비록』 권1, ‘壬辰年 春’.

53) 申晷, 『再造藩邦志』—(『국역 대동야승』 IX-『再造藩邦志』—, 원문 12쪽, 번역문 67쪽, 징비록의 기록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① 이제 행장(行狀)과 조망록(吊亡錄)을 참고하면 본부(本府; 동래부) 양진(兩鎭)이 함락당한 것은 모두 같은 때의 일이었다. 부산은 곧 임진 4월 14일이요, 본부는 15일이니, 또한 다대포의 함락이 역시 본부로 더불어 같은 날인지 알지 못하겠다. 같은 날이 아니라면 그 다음 날이니 요컨대 15~6일을 넘지 않을 것임은 의심이 없다고 하겠다.⁵⁴⁾

② 적(賊)이 군사를 나누어 동래(東萊) 및 여러 포구를 함락하니 부사 송상현과 다대포첨사 윤홍신도 또한 모두 죽었다.(중략)...⁵⁵⁾

앞의 인용문 ①에 따르면 강필리는 부산진성 전투에서 정발(鄭撥)과 함께 순절한 이정헌(李庭憲)의 ‘행록’ 등의 기록을 통해 부산진성 함락이 4월 14일인 것과 동래부와 다대포진의 함락은 15일로 같은 날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용문 ②는 바로 이정헌의 ‘행록’으로 부산진성 전투 이후 동래부사와 다대포첨사가 모두 함께 죽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문제는 첫 번째 인용문 말미에 강필리가 다대포성 함락이 동래부와 “같은 날인지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까지 문헌상으로 4월 15일로 확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15일이 분명하지만 혹시 그날이 아니라면 그 다음날일 것으로 추정했다고 볼 수 있다.

결정적으로 강필리는 다대포첨사 윤홍신을 송공단에 함께 추향(追享)하면서 지은 제문(祭文)에서 “4월 15일, 돌아가신 저녁에 동쪽 단에 배열하고 비석을 깎아 세워...”라고 하여 15일을 기일로 삼았음을 밝히고 있다.⁵⁶⁾

54) 『충렬사지』 권3, 姜必履의 『윤공사절기(尹公死節記)』. (재)충렬사 안락서원, 『충렬사지』 권3, 1978, 72쪽.

55) 『충렬사지』 권10, 李光庭의 『李公庭憲事蹟(行錄)』. 『충렬사지』, 1978, 193쪽.

56) 『충렬사지』 권11, 姜必履의 『宋公壇追享時祭文』. 『충렬사지』, 1978, 210쪽.

요컨대 다대포첩사 윤흥신은 개전일인 4월 14일, 다대포진을 공격해 온 일본군의 1차 공격을 격퇴하면서 임진왜란 최초의 승리를 거두고, 이튿날인 15일 병력을 증강해 재차 공격해온 일본군을 맞아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IV. 조선후기의 현창(顯彰) 과정

다대포첩사 윤흥신의 사절(死節) 경위가 문헌에 기록된 것은 임진왜란 직후였다. 대표적인 기록으로는 앞서서도 언급한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과 팔곡 구사맹의 『八谷集』 ‘난후조망록(亂後吊亡錄)’ 등이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이 있었음에도, 그의 사절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임진왜란 이후 166년째 되던 1757년(영조 33년)에 조엄(趙儼)이 동래부사가 되면서 비롯되었다. 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그는 부사로 부임하기 이전에 『징비록』과 『재조변방지』 등을 통해 다대포첩사 윤흥신의 사절(死節)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부사로 부임한 이후 그는 현장 확인을 통해 충렬사(忠烈祠)에 임진왜란 때 전사한 동래부사 송상현과 부산진첨사 정발은 배향되고 있으나, 같은 때에 그들 못지않은 활약을 한 윤흥신이 빠져있고 또 그의 행적이 완전히 잊혀버린 상황을 알게 되었다.⁵⁷⁾ 그의 기록에 의하면 ‘세월이 오래 흘렀고, 전해진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후손들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세상에 드러낼 사람도 없었다.’라고 한다.

그 후 조엄은 1761년(영조 37년)에 경상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도내

57) 『충렬사지』 권3, 趙儼의 「多大浦僉使 尹公 戰亡事蹟敘」. 『충렬사지』, 1978, 69쪽.

의 효열(孝烈)과 절의(節義)가 높은 인물들을 포상하도록 건의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다대포첨사 윤홍신의 사절에 대해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조정에서의 조처는 예조(禮曹)에서 증직(贈職)을 건의하였고, 의정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였다.⁵⁸⁾

뒤이어 조엄은 1763년(영조 39년)에 일본 통신사 정사(正使)가 되었는데, 일본에 체류하면서 다대포첨사 윤홍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의 아들인 조진관(趙鎭寬)이 남긴 「첨사 윤홍신 순절비(僉使 尹興信 殉節碑)」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⁵⁹⁾

이후에도 조엄은 동래의 충렬사(忠烈祠)에 정발(鄭撥), 송상현(宋象賢)과 함께 윤홍신을 배향(配享)하는 것과 증직(贈職) 및 순절비(殉節碑) 설립 등 현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충렬사 배향은 그의 최초 포상(褒賞) 건의로부터 10여 년 뒤인 1772년(영조 48년), 정월(正月)에 임진왜란 3주갑을 맞아 조정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⁶⁰⁾ 이에 따라 충렬사에 윤홍신을 추향(追享)하는 예조의 관문(關文)이 내려지고, 같은 해 2월 12일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⁶¹⁾

다음으로 조엄의 윤홍신에 대한 증직(贈職) 건의는 당시에 바로 시행되지 않았다.⁶²⁾ 이때 증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미 선조(先朝; 숙종) 때에 정려(旌閭)하고 병조참판을 증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에

58) 『충렬사지』, 1978, 70쪽.

59) 趙鎭寬, 「僉使 尹興信 殉節碑」(... 後百有餘年 我先大夫守萊府 繼乏東槎知公事甚熟 愍其闕於宋鄭之祠...); 현재의 “尹公壇” 내에 비(碑)가 있다.

60) 『영조실록』 권118, 48년 1월 경술

61) 『충렬사지』 권3, ‘追享忠烈祠禮曹關’ · ‘同季二月十二日告由祭祀’. 『충렬사지』, 1978, 75~76쪽.

62) 『충렬사지』 권3, 趙曦의 「多大浦僉使 尹公 戰亡事蹟敘」(위의 책, 69쪽)에는 그가 영조 26년(1761)에 포상을 건의했고, 예조에서 ‘증직’을 의정부에 보고했으나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다.

대한 이러한 증직 사실은 그를 충렬사에 추향하도록 허락한 예조의 관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⁶³⁾

이후 1854년(철종 5년) 연말에 암행어사 박규수(朴珪壽)가 윤홍신을 병조참판에서 병조판서로 추가 증직할 것과, 자손을 녹용하고 시호(諡號)를 내릴 것을 건의하였다.⁶⁴⁾ 왕의 재가를 받은 기록으로 보아 증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에게 내려진 시호(諡號)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의 사절을 기념하는 순절비 건립 추진은 조엄 당대부터 시작되었다. 앞서 언급한 『충렬사지』에 의하면 경상도 관찰사로 있던 조엄이 포상을 건의한 4년 뒤인 1765년(영조 41년)에 당시 다대포침사 이해문(李海文)이 단(壇)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⁶⁵⁾ 즉, 후임 침사 이해문에 의해 윤공단(尹公壇)이 처음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순절비는 이로부터 한참 뒤에야 세워질 수 있었다. 최초에 이해문은 윤홍신의 순절비(殉節碑)를 세우고자 조엄에게 비문(碑文)을 청해 받고 돌비석까지 마련하였으나, 미처 세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전직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포함하여 조엄의 아들 조진관(趙鎭寬)이 새로운 비문을 작성하였으나, 이때에도 비를 세우지는 못하였다. 결국 순절비는 1841년(헌종 7년), 조진관의 아들 조인영(趙寅永) 때가 되서야 이루어졌다.

당시 풍양(豐壤) 조씨(趙氏) 세도정권을 이끈 영의정 조인영의 당부를 받은 동래부사 홍중응(洪鍾應)이 부임하면서 기존 조진관의 비문에 자신이 비를 세우게 된 연유를 더한 순절비를 세웠다.⁶⁶⁾

63) 『충렬사지』 권3, ‘追享忠烈祠禮曹關’. 『충렬사지』, 1978, 74쪽. 원문은 『충렬사지』 권3의 7면.

64) 『승정원일기』 2562책, 철종 5년 12월 22일 병진.

65) 『충렬사지』 권11, 尹公壇(開基祝文, 正壇祝文). 『충렬사지』, 1978, 207쪽.

66) 현 윤공단 내 「兪使 尹興信 殉節碑」, 碑文.

이상에서 살펴본 윤흥신에 대한 현창 사업은 18세기 중반 조엄으로부터 그의 손자 조인영까지 3대에 걸쳐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풍양 조씨 3대의 현창사업이 계속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영의정이 된 조인영이 선대로부터의 현창사업을 유업(遺業)으로 계승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조인영 당시 풍양 조씨가 외척이 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의 윤흥신 현창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엄 가문의 윤흥신 현창사업도 계속되었지만, 그렇다고 조선 조정의 관련 조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먼저 있었던 조처는 1605년(선조 38년)의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에 그가 1등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보다 먼저 반포된 ‘선무공신’ 18명 외에 임진왜란에서 전공(戰功)을 세운 9천여 명의 원종공신 중에 ‘첨사 윤흥신’은 1등에 올라 있다.⁶⁷⁾ 이를 통해 임진왜란 직후부터 조선 조정이 윤흥신의 공적을 공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앞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숙종대에 그에 대한 정려와 병조참판 증직이 이루어졌고, 조엄의 건의에 따른 영조대의 충렬사 추가 배향, 그리고 철종대의 병조판서 추가 증직 논의 등의 조처가 차례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요컨대 윤흥신에 대한 현창은 조엄이 처음 포상을 건의한 뒤 손자대에 윤흥단의 사절비(死節碑) 건립까지 풍양 조씨 가문 3대에 걸쳐 지속된 노력이 주목받을 만하다. 이와 함께 조선 조정에서도 윤흥신에 대한 현창을 위한 조처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67) 『선무원종공신녹권』(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본), 『충렬사지』 권3, 姜必履의 『尹公死節記』, 『충렬사지』, 1978, 73쪽.

V. 맺음말

본문 앞 장에서 조선전기 대표적인 훈척 가문인 파평 윤씨, 그 중에도 을사사화의 파장으로 최고의 지위에서 노비가 되는 등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윤홍신에 대해 그의 가문과 생애를 살펴보았다.

을사사화 이후 32년 만에 신분을 회복한 윤홍신은 임진왜란 초기 다대포첨사로서, 임진왜란 첫날(1592년 4월 14일)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음 날 임지를 지키다가 장렬히 순직하였다.

그는 비록 사림의 인정을 받지 못한 훈척의 후예이지만, 그가 거둔 임진왜란 초기의 전투 결과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충절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조선후기에 그에 대한 현창사업이 진행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사절에 대한 사실은 일찍부터 역사 기록에 남았지만, 다른 연유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부산 지역의 다른 순절 인사들에 비해 현창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18세기 중엽, 동래부사와 경상감사를 역임한 조엄은 이 사실을 알고 조정에 포상을 건의하였다. 조엄 당대에 충렬사 추가 배향이 이루어졌고, 손자인 조인영 때에 윤홍신의 순절비를 세우는 등 3대에 걸쳐 그에 대한 현창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조엄 가문의 윤홍신 현창은 재조명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조선 조정에서도 다대포첨사 윤홍신에 대한 선무원종공신 1등 책봉, 정려와 증직, 충렬사 추가 배향 등의 현창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사료

『조선왕조실록』(세종~선조), (영조)
 『승정원일기』(철종)
 『知退堂集』(李廷馨, 『한국문집총간』 제58집)
 『壬辰狀草』(李舜臣), 『八谷集』(具思孟, 『한국문집총간』 제40집)
 『李忠武公全書』, 『懲毖錄』(柳成龍), 『再造藩邦志』(申晫)
 『宣武原從功臣錄券』(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본)

2. 저서 및 논문

이형석, 『壬辰戰亂史』上, 임진전란사 간행위원회, 1967.
 서인한, 『임진왜란사』(민족전란사 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이이화, 『조선과 일본의 7년전쟁』, 한길사, 2000.
 (재)충렬사 안락서원, 정중환(丁仲煥)·김석희(金錫禧) 번역, 『충렬사지』, 대광인쇄공사, 1978.
 윤영준, 『다대포침사 율홍신공 사적』(부산, 제일인쇄재료사출판부), 1981.
 허선도, 「壬亂劈頭 동래(부산)에서의 여러 순절(殉節)과 그 崇揚事業에 대하여(上)」, 『한국학논총』 10, 1987.
 김석희, 「임진왜란과 부산항전」, 『향도부산』 9, 1992.
 徳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 丁篇(朝鮮役 上卷)』, 東京 民友社, 1921.
 池内宏, 『文祿慶長の役』別編 第一, (東京 (財)東洋文庫), 1936.
 北島万次, 『朝鮮日日記・高麗日記(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 (株)そしえて(東京), 1982.
 텐케이[天荊], 『西征日記』(김시덕, 『서정일기』(상)), 『문헌과 해석』 58, 2012년 봄.
 吉野甚五左衛門, 『吉野日記』(김시덕, 『요시노진고자에문 비망록』, 『문헌과 해석』 63, 2013년 여름).

투고일 : 2020. 05. 25. 심사완료일 : 2020. 06. 24. 게재확정일 : 2020. 07. 08.

| Abstract |

Dadaepo-chumsa Yoon heung-Shin's honorable death in
Imjinwaeran and memorial works at late Joseon era.

Lee, Min-Woong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Imjin Waeran, 다대포침사(Dadaepo Chumsa) Heung shin Yoon was born as the fifth son of a famous family of the Papyung Yoo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especially Yoon Im who was the aunt of King In Jong. After his family suffered a downfall due to the Ulsa calamity, he regained his status after spending 32 years as a servant.

And after holding various government posts, he became the Dadaepo Chumsa just before the Imjin Waeran. On the first day, he defeated the Japanese forces at the Battle of the Dadaepo Castle and this is historically important as it is the first victory of the Imjin Waeran. He died on the second day while defending his post.

His honorable death was not known until the 18th century for several reasons. When Cho Um, who was the 동래부사(Dongrae Busa) and 경상감사(GyeongSang Gamsa) during the mid 18th century, found out about this, he requested a reward to the Imperial Court. During Um's time, sanctuaries were built in honor of Yoon along with additional stone monuments in In Young Cho's time, who was the grandson of Um. The effort that lasted for three generations of Um's family to honor Yoon is worth noting.

On the other hand, the Chosun Imperial Court was doing its work of honoring the dead by providing 선무원종공신 1등 책봉(Sunmoo Wonjong

Gongshin), 병조참판 증직(Byungjo Champam), and building additional sanctuaries.

Key Words : famous family of the Papyung Yoon, 다대포참사(Dadaepo Chumsa), the first victory of the Imjin Waeran, His honorable death, three generations of Cho Um's family to honor Yoon